

# 영암군, 다문화가족 취학전 학부모 교육 실시

## 영암교육지원청 연계 '미리 스쿨 배움터' 운영

영암군 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에서는 취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최근 2023년 다문화가족 취학전 학부모교육 '미리 스쿨 배움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취학 전 준비사항 등 학부모역할을 돕기 위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전하는 '미리 스쿨 배움터', 동행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나는 작은 학교 배움터'로 실시됐다.

학부모들의 참가 편의를 위해 야간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14일 삼호읍 가족센터 △15일 영암읍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됐다.

학부모 및 자녀 93명이 학교 현장을 미리 체험하며 초등학교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준비하는 자리가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자녀를 양육하며 고민이 많았고 자녀의 입학에 앞두고 궁금한점과 불안함이 커졌다"면서 갖가지 사항을 질문했다

교육 관계자는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협력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지도방법과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부모 역할의 필요성을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금번 교육으로 인해 취학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족의 궁금증과 불안함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다문화 가족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이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영암군 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에서는 취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최근 2023년 다문화가족 취학전 학부모교육 '미리 스쿨 배움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영암군 제공

## 강진 도암면, 기부 릴레이

최근 강진군 도암면 옥전마을 주민 이재창 씨가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며 50만 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기부금은 전액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돼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창 씨는 "최근 타 지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안타까운 선택을 한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하고, 우리 면에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자녀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산옥 민간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로 도암면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암면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웃사랑 기부릴레이를 이어가 177호를 돌파했다. /전운재 기자

## 목포시, 시내버스 운행 재개 환영 재발 방지 위한 경영 개선안 요구

목포 시내버스가 14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목포시가 입장문을 발표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개선안을 요구했다.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은 가스연료비 미납으로 64일 동안 중단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인내하고 견뎌준 시민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이어 버스회사가 가스 연료비 체납을 자체해결 했지만 여전히 시내버스 운행중단 우려가 존재한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경영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태원·유진 운수가 목포시의 기업회생절차 제안보다 더 나은 경영개선책을 제출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향토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목포시도 중단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성태 기자

먼저, 재무관리단 관련 사항은 시·시의회·버스회사간 3자 협의의 후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버스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재발되면 즉시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는 입장이다.

시는 만일 사업면허 취소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공공형 버스 확대와 대체 사업자 투입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운행이 다시는 멈추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오는 7월 준공영제·공영제 운영 결과를 종합해 시민공청회, 시의회, 노사정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함평군, 고농도 유용미생물 공급 재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고농도 유용미생물 공급을 재개한다.

군은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기 2대를 고성능 신규 배양기로 교체하고, 오는 22일부터 고농도 유용 미생물을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약취저감균 등 5종류의 미생물을 연평균 150톤 생산해 주 2회(수·목요일)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공급 희망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실(061-320-2890)로 신청하면 된다.

미생물은 토양 살포시 작물생육을 촉진하고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병해충 발생 빈도를 낮추고 색과 당도를 높여는데 도움이 되며 축산에 이용할 경우 우 약취 감소와 가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사용법은 작물에 ▲관주 시비하는 경우 500~1천배 ▲옆면 시비하는 경우 200~500배 ▲축산용은 약취제거 100~200배 ▲음수투여는 1천배~2천배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현재 함평군은 비료용 미생물의 경우 리터당 300원, 사료용은 리터당 400원에 유상 공급하고 있으며, 비료용 구입 시 반드시 개별용기를 지참해야 한다. /서용운 기자

신청은 희망하는 농가는 공급 희망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실(061-320-2890)로 신청하면 된다.

미생물은 토양 살포시 작물생육을 촉진하고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병해충 발생 빈도를 낮추고 색과 당도를 높여는데 도움이 되며 축산에 이용할 경우

## 신안군 버스요금 16년째 1천 원 동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이 16년째 대중교통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어려운 서민들 경제에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비싼 대중교통요금 체계에서도 대도시보다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현재까지 16년째 일 반 1천원 버스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해 이용객 67만여 명 중 80% 이상이 무상교통(65세 이상, 학생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38년이 넘는 도서 지역의 해묵은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안전공영제의 성공적인 완착

으로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루어낸 결과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비자 물가는 물론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신안군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 동결, 무상교통 지원 등 해상 및 육상 교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무안,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2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음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부군수를 총괄로 한 청렴 TF팀은 청렴도 평가항목 업무와 관련된 보조금, 세정, 계약, 공사, 인사 등 감사팀을 주축으로 4개 반 15개 팀으로 구성했다.

TF팀은 인허가, 공사분야 등에서 청렴체감도가 타 지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낮게 평가된 분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팀이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청렴인식을 함양해 나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월 1회 제출받아 청렴 자기성찰의 마음을 다지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